

빈곤의 부조리-빈민의 고통-초월적 신 존재 사이의 딜레마

- 혼 소브리노의 악고론을 중심으로

홍성우 (장로회신학대학교 M.Div과정)*
탁장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I. 들어가는 말
- II. 빈곤의 부조리와 빈민의 고통
- III. 악-고통의 문제와 신 존재의 공존에 대한 근대적 해석
 - 1. 화이트헤드의 근대철학적 악고론: 인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악고
 - 2. 몰트만의 기독교론적 악고론: 악고의 현장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 IV. 소브리노의 현실적 악고론 분석: 고통의 당사자와 예수의 일체화
- V. 맺는말: 빈곤의 부조리와 빈곤한 타인의 고통을 향한 잠정적 응답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14>

* 주저자, fnvldhkehdfy@naver.com

** 교신저자, purequest@naver.com

• ABSTRACT •

The Dilemma among Irrationality of Poverty-Suffering of the
Poor-Existence of Transcendent God: On the Focus of Jon Sobrino's
Theodicy

M.Div. Course., Hong, Sung Woo(Presbyterian University)
Ph.D. Candidate., Tak, Jang Han(Seoul National University)

Crowded spaces including Jjokbangchon, subway stations, and Goshichon often suffer more visible pain than seen in general residential areas and experience untimely deaths, despite not being noticed. If the transcendental and all-powerful God truly loved humans, this phenomenon would be considered absurd. God's love gives birth to peace and vitality; but how should we explain the lives of those in poverty in God's perspective? It would be tragic if the lives of those in poverty is a result of God's love. Indeed, a person's life cannot be defined as simply negative/hopeless or painful just because he/she spends the whole day drinking or faces life or death situations everyday. This perspective interprets the lives of the poor in a different manner; yet it creates the assumption that God is love while failing to address the core issue of poverty and the suffering of the poor. It is also unethical as it overlooks the problem of structural poverty while wrapping it as the love of God. Is there any interpretation that can coexist with God's existence whilst taking account of the state of poverty as well as providing an awareness of the issue?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le answers to those that seek transcendental God's great love amid harsh reality where the poor's humanity is destroyed and face death unfairly. This paper will explore using the recent theodicy, in specific to Jon Sobrino's theodicy.

Key words: Poverty, The Urban Poor, Homeless, Theodicy, Jon Sobrino

I. 들어가는 말

생을 채우지 못한 부고가 빈번하게 들려온다. 빈곤이 밀집된 쪽방촌과 지하철역을 주요 사역지로 설정하고 사회선교를 수행할 때 설 새 없이 마주치는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그곳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마땅한 기본적 의식주의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하는 빈핍한 홈리스(Homeless)의 극도의 고통이 놓여있다. 여기서 홈리스란 집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며, 단지 거리노숙인 뿐 아니라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및 노숙과 비노숙의 경계에 놓인 잠재적 노숙인인 쪽방촌 주민까지도 대상으로 포괄되는 개념이다. 특히 쪽방은 집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기본적인 취사 및 세면시설조차 없어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주택' 공간이므로, 비록 노숙생활과 명확한 차이가 있어도 언제든지 회귀가 가능한 경계선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그곳의 주민들 또한 홈리스에 포함된다. 물론 그들 모두는 예외 없이 사회의 극빈층으로 수렴된다. 수난받는 인간군상인 홈리스의 궁핍한 현실은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로마서 8:22)는 성서의 구절을 연상시킨다.

이들 빈민이 머무르는 빈곤의 공간에는 진입과 동시에 오감의 순간적이고도 생생한 충격이 있다. 온갖 바퀴벌레들과 비둘기 떼, 지린내와 악취, 너저분한 술병, 주사와 다툼, 냉골과 음산함 등 이곳 가난의 첫인상은 구체적이고 강렬하다. 이곳을 스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 절망만이 스냅샷처럼 뇌리에 박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역에서 매번 고통만 마주하거나 그것에 천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라포(rapport)가 형성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므로 비록 그 농도는 서로 다를 수 있어도 희로애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 무료배식소를 선택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생존전략도 있고, 단순히 지금의 처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재미나게 살아가려는 모습들도 있으며, 동료 혹은 이웃끼리 서로를 챙기는 깊숙한 유대감과 세상에 대한 잦은 분노도 공존하고, 신을 향한 뿌리 깊은 사랑과 고뇌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오로지 사회적 희생양이라든지 개인의 병리적 행동이라고만 결론지을 수 없는 특유의 건강한 에너지도 포착된다. 투박한 그들의 선량하고 온화한 모습과 존엄성을 빈번히 접할 수 있어 해당 사역에 대한 적응은 쉽지 않더라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과 삶의 경계에 놓인 굶주린 그들은 육체와 정신이 자주 병들고 연령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불안한 사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이면 대다수 홈리스의 구체적 염려는 더욱 치명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다. 아무리 고통을 극복하는 힘인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가졌다고 해도, 그 강인함은 개인적 자질, 기껏해야 몇몇의 공동체적 자질일 따름이다. 환언하면 그들이 고통에 대항하는 역량을 구비했다고 해서 고통이 부재하다거나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밥을 얻어먹기 위해 수도 없이 돌아다니며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들은 단지 더 맛있는 밥을 먹으려는 홈리스의 생존전략에 의해 은폐될 수 없다. 위기에 대처하는 홈리스 당사자들의 건강한 태도에 대한 발견이 혹여 그들이 처한 현실의 부조리를 숨기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면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며 의로운 신의 사랑은 빈곤의 부조리와 관련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쪽방촌에는 평수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라든지, 그마저도 현금으로의 지불이 암묵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추되는 건물주 탈세의 정황들, 그러면서도 정작 관리는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심각한

게 방치되는 현대판 착취와 배제의 상황들이 포착된다. 지하철역에서는 매일같이 홈리스에게 자행되는 공권력의 계속되는 감시와 시민들의 눈치, 심지어 국가적 행사와 같이 주요한 사건들을 앞두고는 도시미관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상황들이 허다하다. 만약 사회선교를 위해 일회성 봉사나 구제를 하러 방문하는 경우, 스냅샷은 그저 자극적으로 보이는 고통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악의 실재와 구조를 쉽게 담아내지 못한다.

본고는 생사의 문제를 고뇌하며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자신과 같은 빈곤하고 처참한 삶과 실패한 인생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당사자들의 푸념 섞인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전통신학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개인의 죄와 연결하는 교리를 강조해왔으나, 단순하게 빈곤한 삶을 죄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인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빈곤의 개인원인론으로서 고작 피해자를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blaming the victims)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고통을 태만한 죄의 대가로 치환시키는 신학은 곧 세상의 고난을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회피해야 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며, 타인의 고통에 거부감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동정적 실천을 낳는다.¹⁾ 그러나 연민은 대부분 고통과 관련되는 주요한 요인인 억압과 착취의 시스템으로부터 눈 돌리게 하며, 악을 의심하고 없애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악에 부역하게끔 한다.²⁾ 그렇다면 빈곤에서 파생되는 실존적 고통의 문제는 결국 그것을 둘러싸는 악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가난했던 예수는 자신의 죄의 대가 때문이 아니라 무고하게 고통받고 죽임을 당했다. 피조

1) 박일준, “평화, 그 불확실성을 위한 용기: 화이트헤드와 헨리 나우웬의 평화 개념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국문화신학회 편저, 『평화의 신학』(서울: 동연, 2019), 141.

2) Jon Sobrino, *Jesucristo liberador*, 김근수 역, 『해방자 예수』(서울: 메디치미디어, 2015), 42.

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희구하고 있다(로마서 8:21).

II. 빈곤의 부조리와 빈민의 고통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홈리스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로 공원, 거리, 지하철역, 버려진 건물 등 숙박의 용도가 아닌 장소를 거처로 삼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거리노숙인으로도 불린다. 보다 광의적으로는 단기 보호시설인 노숙인 쉼터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시해 찜질방,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전전하는 사람,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서 얹혀사는 사람, 비주택으로 규정된 쪽방이나 여인숙과 같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빈민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보건복지부(2016)에서 수행했던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 수는 11,340명, 쪽방 거주민은 6,192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국가에 의해 드러난 최소한의 통계수치일 뿐이다.

흔히 사회과학에서 빈곤의 개념은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과 한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극심한 가난을 후자는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를 각각 투영한다. 이들 홈리스는 주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회사에 다니는 일반인들과 외관상으로는 생활상으로는 확연하게 대조됨은 물론, 의식주의 기본욕구로부터도 박탈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상대적/절대적 빈곤 모두를 겪는 그야말로 한국사회 내 극빈층이다.

극도로 가난해진다는 것은 즉 다중수난을 겪는 것이다. 먼저 빈곤의 다차원성 측면에서 홈리스의 상태는 단지 집이 없다(houseless)는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업이나 가족해체, 사회적 배제, 건강 및 자살문제와도 직결된다.³⁾ 이는 빈곤이 경제적 의미로 제한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정

치/사회/문화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확산, 악화시키는 역동성을 지닌 개념임을 보여준다. 돈과 집이 없다는 경제적 빈곤이 일차적 수난, 개인이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이 모든 빈곤이 중층적으로 쌓이는 상황이 이차적 수난이라면, 더 나아가 홈리스 자신이 노숙 생활을 자초한 원인으로 규정되어 그들의 고통이 망각된 채 대중의 찰나의 싸늘한 시선 폭력을 당하고 곧 외면당하거나, 또는 반대로 무조건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으로 프레임화됨으로써 연말이나 절기 등 특정 시기에 쏠리는 민간, 언론, 종교, 기업, 정치인들의 일시적 관심과 동정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것, 그러한 민간의 자원봉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국가가 홈리스의 의식주를 책임지기를 암묵적으로 회피하는 상황 모두는 외발(外發)적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삼차적 수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난은 일차에서 이차, 삼차로 갈수록 점차 사회적 깊이를 더하는 문제로 전환되어간다.

특히 삼차적 수난은 빈민의 ‘박물관화’ 내지는 ‘동물원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모이는 지하철역, 거리, 쪽방촌이야말로 연민 혹은 경멸을 지불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구경하기 위해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박물관이자 동물원이 되고, 홈리스의 존재는 오직 게으름과 고통으로 치환되며 그 자체로 박제되고 전시되는 가여운 작품이자 동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당사자들의 자존심이 훼손되더라도 빈곤하고 배고프기에 겪어야만 하는 수치심은, 불쌍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필연적으로 포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가 강조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은폐된다. 구휼을 통한 고통의 순간적 해소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존재적 구분하에서 이루어지며, 구분은 그 자체로 그 또한 재기해 타인을 섬기는 삶을

3) 탁장한, 박정민, “쉽터노숙인 빈곤대처방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5-4(2014), 357-358.

살아가라는 계도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마저도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사태에서는 감염의 예방을 이유로 민간의 발길과 지원이 대부분 끊기고 있는데, 최근 국가는 이 상황에서 홈리스들에게 최대한 급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최대한 급식 인원 줄이기를 시도하며 RFID 형식의 노숙인 밥증을 발행해 노숙 이력이 국가 데이터상에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이름과 사진이 박힌 카드를 부여해 밥을 주고 있다.⁴⁾ 현재 노숙 중이라는 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무료급식장에서 밥을 먹을 공식적 권한이 없어 돌려 보내지거나 혹여 가능하더라도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었다. 상기했던 홈리스의 개념은 정책상으로는 여전히 거리노숙인으로 국한되고 있음을, 이를 통해 공식화되지 못한 숨어있는 고통이 지금도 얼마나 거대한지를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실존적으로도 쪽방촌 주민들이 자신을 노숙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자신들을 그들과 구별하곤 하나, 유감스럽게도 그 조금 낫다는 다름이 실상은 삶의 조건이 비등함에도 밥을 먹을 수 없는 비공인된 존재로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노숙인들도 제외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노숙인이라는 특권으로 포장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되어버렸다.

사뭇 흥미로운 지점은 현장 주방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급식소가 아닌, 끼니마다 돌아가면서 민간단체들이 차에서 실어오는 음식을 나눠주기만 하는 급식장은 명백히 지자체의 위탁을 거쳤더라도 사실

4) 『경향신문』, 2020.10.17. “[숨] 드럽고 치사한 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70300035&code=990100 (2021.2.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1조 급식 지원에 명시된 바를 무시하고 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 부정부패는 오히려 빈민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빈민들이 전적으로 감내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생활하기 위해 직장, 식당, 마트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반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재적 감염원이 되어 역전이나 쪽방촌을 방문해 봉사하려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여기에 밀집된 쪽방촌에서 도리어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해져 도움의 발길이 단절되는 형국, 그러나 그들의 방문이 끊기면 유감스럽게도 국가적 지원이 여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홈리스의 절망감과 괴로움이 배가되는 상태, 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도움의 손길들이 숭고하게 그려지면서 설령 홈리스의 배고픔은 달래더라도 암묵적으로 당사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소거시켜버리는 행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발길을 향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당사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빈곤의 부조리요, 빈민의 고통이다.

III. 악-고통의 문제와 신 존재의 공존에 대한 근대적 해석

빈곤의 부조리는 인간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겪어야만 하는 삶의 부당한 질고와 훼손이 있음을, 그러한 상태가 빈민을 돕는 사람들의 존재 및 행위들과도 무관할 수 없다는 꽤나 복잡한 그림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악과 고통의 난제에 접근할 길을 열어주는데, 악과 고통의 문제는 진보적, 합리적, 과학적 이성을 낙관하는 세상,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강력한 지표이기 때문이다.⁶⁾

5) 『비마이너』. 2020.11.23. “코로나19에 홈리스 외면하는 서울시, 홈리스 생존 예산 마련하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2> (2021.2.22.)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근원적 무기력의 한계는, 그와는 대비되는 무한한 신의 존재를 사유하게끔 한다. 그러나 문제는 악의 파괴력이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빈곤의 파괴력이 인간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홀리스 빈민들의 육체와 정신을 손상시키듯 말이다. 근대의 합리성에 대한 오만한 자부심을 비웃듯 발생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종청소라는 명분 아래 독일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는, 도대체 무고한 사람들이 왜 이토록 큰 고통과 수난을 당해야 하는지, 신은 왜 이러한 부조리를 허용하는지, 그러한 신의 전능성과 선함은 과연 변론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처절한 고뇌를 낳았다. 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신정론(神正論) 혹은 변신론(辯神論)으로도 불리는 악고론(惡苦論)이다.

악고론은 신학 및 철학의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악은 선(善)의 결핍일 뿐이라며 악의 실재성을 부정했던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 인간세계가 최선일지라도 이곳이 하나님 자신처럼 완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라이프니츠, 악과 고통이 인간의 영혼을 성장시킨다고 본 이레니우스, 인간 및 우주의 절반을 지배하는 필연적 원리로서의 악마적인 악의 실재성을 긍정했던 지젝의 논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의 논의는 악을 부정/긍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기본적으로 고통을 개인이 수용하고 감내해야 하는 수준의 것으로 여기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홀리스 당사자들의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응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근대철학적(화이트헤드), 기독교론적(몰트만), 현

6) 제해중, “악의 실존 앞에서 완전히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와 존 힉의 신정론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23-3(2018), 146.

실적(소브리노) 악고론으로 대분해 사유의 흐름을 만들어보고자 했다. 후술하겠지만 본고의 연구주제 자체가 빈곤한 당사자들의 실재하는 탄식에 대답하기 위한 귀납적 여정이었다. 따라서 본고에 포괄된 세 가지의 논의 또한 연역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연구의 초기에 근대철학적 사유를 통해 답변을 궁구했으나 당사자들의 삶과의 심각한 괴리로 인해 점차 기독교론으로, 나아가 기독교론에서 당사자들의 빈곤한 현실로 접근하려는 시도과정에서 채택된 산물이다. 우선 지금의 현실에 근접하기 위해 근현대의 악고론으로 범위를 한정된 본고는 ‘철학적’, ‘기독교론적’, ‘현실적’의 프레임임을 귀납적으로 선정했다. 이후 본고는 각 프레임 내부에서 대두되는 악고론 중 본고의 주제인 빈곤 문제와의 ‘연관성’을 척도로 삼아, 악고의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 치환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진지하게 다루는지에 의거해 3인의 신학자를 최종 선택했다. 공통적으로 이 3인은 신 존재를 단순히 옹호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인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1. 화이트헤드의 근대철학적 악고론: 인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악고

영국의 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Alfred Whitehead)의 악고론인 과정신정론(Process Theodicy)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으로 참전했던 아들을 상실한 충격을 해소하는 여정이었다. 그는 전통적 하나님의 개념은 세계 속 현존하는 악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세계의 모든 사건을 결정하는 하나님께 책임이 주어지는 딜레마를 피하지 못한다고 보았다.⁷⁾ 신에게 악의 원인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폭군으로 조롱받거나 그 와중에도 유일신론적 결정주의에 입각한 형이상학적 칭송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화이트헤드⁸⁾는 아들의 죽음을 신과 결부시켜 이해해보려는 과정에서 신

7) 오진철, “화이트헤드의 신정론,” 『화이트헤드연구』 31(2015), 156.

으로부터 악이 비롯된다는 비난에 반박하고, 이성에 모순되지 않은 신의 힘의 개념을 제공하고자 했다.⁹⁾

악의 실재성을 인정하는 과정신정론의 진입과정에서는 먼저 해당 신정론의 철학적 체계가 의존하는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인 창조성(Creativity)에의 이해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창조성이 궁극적 실재라는 점은 소립자부터 인간/자연, 심지어는 신까지 우주 내의 모든 현실적 존재들에게서 창조성이 항상 구현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그는 신도 현실적 존재로 봄으로써 유신론을 견지한다.

그 상태에서 화이트헤드는 점진적 진화론에 기반을 둔 우주의 끝없는 진화적 과정을 제안한다. 소위 유신론과 진화론의 공존이다. 물론 이때의 진화적 과정이란 창조성이 계속해서 발현되어가는 과정을 일컫는 개념이다. 그런데 팽창되는 우주의 진화는 항상 긍정적 면모만을 지니지는 않는다. 창조성이 펼쳐지는 진화의 과정은 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수반한다.¹⁰⁾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성은 인간이 내리는 자기결정의 형태를 통해 발휘된다. 인간은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화이트헤드는 합생(concrescence)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하나의 현실적 존재가 또 다른 사람이나 동물, 자연 등의 현실적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산(transition)이라고 불렀다.

8) Alfred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Free Press, 1925), 250.

9) 손호현, “아름다움의 모형: 화이트헤드의 세 가지 신정론 분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3-1(2006), 198.

10) 현실적 존재의 자유는 일정 정도의 갈등과 고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실적 존재의 진보와 자유가 궁극적 가치와 무한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근대의 명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여전히 믿음을 과정신정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악의 문제는 바로 합생과 분산을 포함하는 창조적 진진(creative advance), 곧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이 두 과정에서 발생한다.¹¹⁾ 창조성이 수반하는 특징인 자유 때문이다. 선택의 자유는 진화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좋아질 가능성과 악화될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므로 항상 혼돈과 불안정성이라는 존재론적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러나 그렇기에 화이트헤드는 혼돈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며, 선과 악 모두를 실현할 가능성의 기초가 된다고 간주했다.¹²⁾ 혼돈을 고통과 악의 암시라거나 상징으로 제한해서 보았던 전통 성서학자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악의 문제는 현실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가 악화될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면서 인간 가치의 보존이 깨어질 때 등장하는 것이다.

과정신정론에서 본래적 악(intrinsic evil)은 부조화(discord) 및 불필요한 사소함(unnecessary triviality)으로 구분된다.¹³⁾ 먼저 화이트헤드는 우주 속 고난의 근본적 이유를 현실적 존재의 창조성과 긍정적 부조화의 원리로 이해했다. 부조화는 현실적 존재를 파괴하는 감정으로, 그 자체로 현실적 존재의 구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절대적 악이지만 때로는 완벽함에 도달하려는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화가는 창조성의 발현과정에서 더 나은 작품을 추구하기 위해 완성했던 기존의 작품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미학적 파괴는 부득이하게 부조화를 전제한다.¹⁴⁾ 주시해야 할 지점은 본래적 악으로 규정된 부조화가 종종 긍정적 역할을 할 때 포함하는 구체적 고통은 타인

11) David R. Griffin, *Evil Revisite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23.

12) 주의할 점은 창조성의 형이상학적 원리가 신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이 곧 신이 창조성보다 더 작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진철, “화이트헤드의 신정론,” 141-150을 참조.

13) David R. Griffin, *God, Power, and Evil: A Process Theodic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282.

14) 오진철, “화이트헤드의 신정론,” 149.

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겪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현실적 존재인 타인의 구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부조화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반면 사소함은 지루함이나 열정과 흥미의 부족 상태로, 현실적 존재가 단지 신이 부여한 이상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본래적으로 되어야 할 상태보다 더 사소하게 될 때만 악이 된다.¹⁵⁾ 위의 사례에서 화가가 더 나은 작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작품으로 만족하는 것은 사소함의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사소함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본래적 가치를 부단히 실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득이하게 더 많은 자유가 요구되고 그만큼 부조화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¹⁶⁾

흥미로운 점은, 화이트헤드는 악의 문제가 인간의 자유가 더 나빠질 가능성을 향해 움직일 때 나타난다고 보았으나 실상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더 나은 가능성을 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산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 사회에서 악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궁극적 원리인 창조성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때문이다. 비인간적인 악도 인간다움의 과정에 포함된다는 역설적 통찰이 드러난다.

창조성이 궁극적 실재고 그로 인해 피조세계 안에서 악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¹⁷⁾ 인간과 세계는 주체적 지향(subjective aim), 곧 늘 미래로 열려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신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최종적 이유가 되는 것이다. 시간적인 현실적 존재들은 스스로 자기창조한다.¹⁸⁾

15) David R. Griffin, *God, Power, and Evil: A Process Theodicy*, 284.

16) John B. Cobb & David R. Griffin, *Process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73.

17) 장왕식, 「악의 실재성에 대한 과정신학적 이해: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초하여,」 『화이트헤드연구』 19(2009), 158.

그렇다면 이제는 악의 문제에 있어 궁극자가 아닌 신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신의 존재근거는 무엇이며, 그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계를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아도 독특하고 중요한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세계를 변혁시킴으로써 악의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¹⁹⁾ 하나님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는 당신 자체가 궁극적 실재(창조성)는 아니더라도 창조성을 발휘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현실적 존재(ultimate actuality)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가령 사물의 근거를 현실적 존재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존재론적 원리(ontological principle)²¹⁾에 의하면, 시간적인 현실적 존재의 주체적 지향은 어떤 현실적 존재로부터 연유해야 하나 시간적 제약을 받는 존재들 자체로부터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이 현실적 존재들을 인도하는 합생의 원리에 따라 일하는 궁극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²²⁾ 하나님은, 궁극적 실재임에도 끝내 현실적 존재의 부재 시 의미가 없는 가능태로서의 창조성을, 모든 사건이 자신들을 실현해내고자 할 때 하나의 이상과 목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실화시키는 궁극적 역할을 이행한다. 그것이 신의 창조성이 발휘되는 방식이자, 악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충만한 창조성을 발휘하는 신의 역할은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기회의 비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²³⁾ 그것이 신이 가진 의식이며, 그래서 현실적 존재인 신의 원초적 본성의 결합이 극복된다.²⁴⁾ 악

18) 석종준, “화이트헤드의 종교와 신에 대한 소고,” 미간행, 7.

19) 장왕식, “악의 실재성에 대한 과정신학적 이해: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초하여,” 160.

20) 위의 논문, 160.

21) Alfred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29), 68.

22) 석종준, “화이트헤드의 종교와 신에 대한 소고,” 6.

23) Charles Hartshorne, *Reality as Social Process* (New York: Hafner Publishing Co., 1971), 107.

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면 자유의 부여가 필수적이다. 강압이 아닌 하나님의 설득하는 힘은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불어넣으며, 자유에 더해 추구할 이상까지를 고취함으로써 선을 향한 인간의 기회들을 최대화하고 악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내한다.²⁵⁾

악의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소재였던 하나님을 해방한 과정신정론은, 곧바로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막중한 책임을 강조한다.²⁶⁾ 그리고 자유롭게 된 신은 악의 실재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의 지난한 여정에서 무감각한 방관자보다는 악을 함께 극복하는 수난자이자 동반자가 된다.²⁷⁾ 악을 저지르지도 모르는 인간을 믿어주고 참된 자유를 향한 세상 속 그들의 모험에 능동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며 역사하는 하나님은, 그로 인해 고통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현실적 존재의 아픔 또한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동참한다.²⁸⁾ 평화를 향한 인간의 여정에 있어 신 또한 실재 과정의 비극적 측면에 지대한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이때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절대 홀로 방치시키지 않는 존재이자, 우주의 피(被)고통자로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함께 무한히 모진 악을 견뎌낸다.²⁹⁾

화이트헤드의 논의는 당시 근대의 과학적 사고방식에 맞서되 신비적 언어보다는 상대의 합리적 언어로 표현된 사유의 논리적 결과물이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전능함을 벗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인간의

24) 석종준, “화이트헤드의 종교와 신에 대한 소고,” 7.

25) 오진철, “화이트헤드의 신정론,” 158.

26) 위의 논문, 161.

27) David R. Griffin, *Reenchantment Without Supernaturalism*, 장왕식, 이경호 역. 『화이트헤드 철학과 자연주의적 종교론』(서울: 동과서, 2004), 383.

28) David R. Griffin, *God, Power, and Evil: A Process Theodicy*, 309.

29) Charles Hartshorne, *Man's Vision of God and the Logic of Theism* (Hamden, CT: Archon Books, 1964), 172.

자유를 믿고 지지해주는 화이트헤드의 악고론은 역설적으로 매우 근대적이고 휴머니즘적 성격을 띤다. 그 또한 시대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셈이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근대적 수사로 표현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첫째로 창조성, 궁극적 실재, 합생, 분산, 창조적 전진 등을 포괄하는 과정신정론의 언어는 자체적 정교성과 인간의 책임을 중요시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난해한 용어들을 당장 눈앞에 놓인 고통의 당사자를 향한 응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인다. 생소한 용어들이 늘고 설명하는 논리가 정교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그들과 우리의 언어적 장벽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로 풀어낸 하나님은 유감스럽게도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씨 착한 존재일 뿐이다.³⁰⁾ 둘째로는 아무리 고통에 놓인 현실적 존재의 아픔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간존재가 겪는 고통일 뿐 그러한 인간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계획들에 의해 파괴되고 희생되는 인간군상의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기 때문이다. 이상에 접근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하나의 군집으로 동질화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한 것이었다. 게다가 앞서도 밝혔듯 하나님의 전능을 제거하는 방식의 논리였기 때문에 악의 실재는 조명했더라도 희생자들의 무기력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30) 제해중, “악의 실존 앞에서 완전히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와 존 힉의 신정론을 중심으로,” 157.

2. 몰트만의 기독교론적 악고론: 악고의 현장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신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다며 신의 부재와 죽음까지 생각해야 했던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은 결코 그 이전의 신학과 같을 수 없었다.³¹⁾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을 향한 질문은 왜 무고한 자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고통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와 같은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전환되어갔다. 회고 하면 본고의 출발점이었던 흠리스 당사자의 고통스러운 의문은 실상은 후자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다. 더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나 아직 신앙을 잃지는 않은 사람이 던지는 최후의 질문이라고 직감되었기 때문이다.³²⁾ 희망의 종말론이 대두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극도의 고통이 만연한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함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형이상학적 신학의 전통과는 달리 독특하게 해석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고,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수난당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논의를 출발한다. 성부수난설을 주장하던 기존의 오래된 이단을 소위 새로운 정통으로 만들어 위상을 높인 것이다.³³⁾ 화이트헤드가 철학과 신론에 기댔던 반면, 몰트만은 악고론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진 전적인 허무와 하나님 부재의 고통을 당했던 예수의 죽음에서 구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부르짖었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하나님의 신성과 아버지로서의 부성에 대한 저항의 절규였고, 그것은 지금도 죽어가는 자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한다는

31) 김동건, “몰트만의 신정론,” 『신학과 목회』 14(2000), 168.

32) 위의 논문, 169.

33) Ronald Goetz, “The Suffering God: The Rise of a New Orthodoxy,” *The Christian Century* 103-13(1986), 385.

악고론의 골자가 된다.³⁴⁾ 죽어가는 예수의 절규 속에서 절체절명의 도전을 받게 된 성부 하나님 역시 십자가의 고뇌와 무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아들이 수난을 당할 때 아버지 자신이 아들의 버림받은 상태로 인해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고,³⁵⁾ 그렇게 고통은 버림받은 아들과는 다른 종류인, 아들이 죽는 시점에서 아들과 완전하게 분리됨에 따른 무한한 아픔으로 아버지께 임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나 다름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깊은 친밀함과 일치하는 역설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십자가의 시점에서 아들의 고난의 심연과 최악의 지옥 속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한 영의 사권을 가져온 성령을 통해 발생했다.³⁶⁾

몰트만에 의하면 사실 전능하기만 하고 고통당하지 않는 신은 무력함과 무능함을 경험할 수 없는 신이므로 불완전한 존재일뿐더러, 고통에 참여할 수 없는 신이므로 인간보다도 불쌍한 존재다.³⁷⁾ 게다가 그런 신은 그 자체로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 또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신은 신의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에서의 예수와 하나님의 수난을 토대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인간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신비적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다.³⁸⁾

몰트만은 악고론을 부활과 위음으로써 고통의 현실뿐 아니라 고난을 생명으로 바꾸는 종말론적 희망, 곧 고통의 극복과도 연결한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선취된 현실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

34) Ju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72), 150-151.

35) Jurgen Moltmann, *The Way of Jesus Christ* (London: SCM Press, 1990), 173.

36)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신정론 문제의 응답으로써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의미,” 『한국조직신학논총』 33(2012), 268.

37) Ju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223-232.

38) Ju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이신건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77.

다.³⁹⁾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희망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현재의 부정부패에 대항할 힘을 획득한다.⁴⁰⁾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절규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개인적 죽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⁴¹⁾ 그것은 하나님 이 자신을 버려야만 하는 최악된 현실, 신이 부재하는 어두움의 현실에 대한 혼신의 저항이었고, 현실의 부조리에서 인간을 해방하려는 행위였으며 예수의 저항은 앞 단락의 논리에 따라 곧 하나님의 저항이었다. 몰트만은 예수의 사랑과 미래의 희망이 당장 지금 모든 고통과 악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결국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신앙을 토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조리와 모순의 현실에서 굴복하지 말고 고통의 당사자들과 연대함으로 저항할 것을 외친다.⁴²⁾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프락시스(Praxis)를 강조한 유럽의 정치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에 영향을 끼쳤다.⁴³⁾

무고하게 죽어가는 당사자, 다시 말해 고통의 외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픔을 겪는 본인에게 이 모든 논의는 어떠한 의미일까. 몰트만의 경우에는 성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 속에서 함께 수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도출해내는 것이었다. 이 모든 논의는 빈곤으로 고통을 겪는 흠리스 당사자에게는 부활의 희망과 위로를 줄 것이며, 당사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부터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며 그들과 함께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므로 각성을 위한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이 분명하다.⁴⁴⁾ 당사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접근은 오히려 전

39) Ju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64), 139.

40) 신옥수, “한국에서 몰트만의 수용과 이해,” 『한국조직신학논총』 35(2013), 189-197.

41) 위의 논문, 183.

42) Jurgen Moltmann, *Hope and Planning* (New York: Harper & Row, 1971), 49.

43) 김동건, “몰트만의 신정론,” 186.

44) 서한석, “그리스도교의 희망과 출애굽 공동체에 대한 이해: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듯하나 이 구분은 존재적 구분이 아닌 사회적 구분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가난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상태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인간의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전쟁포로의 경험을 가졌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유한 제1세계의 신학자였던 몰트만의 악고론 또한 고통받는 가난한 당사자들의 실존적 무기력함에 직접적 답변을 주지는 못하며, 그야말로 그의 문화적 한계에 기인한다.⁴⁵⁾ 마치 제1세계의 궤적을 자체적 문제를 지닌 제3세계에 이식하면 그들이 교화되고 빈곤에서 탈피하며 근대화될 것이라는 발전주의적 태도가 훗날의 희망이라는 이름 아래 복선처럼 깔린 듯 보인다. 제1세계를 그리스도인, 제3세계를 빈민으로 각각 치환하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해방적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⁴⁶⁾ 그러나 그의 논의는 부활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사회적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 수난과 헌신으로 인해 세상이 변하리라는 낙관론에 기대는데, 여기서도 실상은 불가피한 고통의 외부자인 그리스도인의 참여가 강조되므로 결국 빈민의 존재는 묻히고 만다. 죽어가는 예수보다도 그와 함께 고통당한 하나님이 부각되었다는 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몰트만식 대답은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겪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무엇이 되었든 그 자체로 숭고하고 문제없이 정당화되며, 실상 빈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을 촉발한 주요한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한다. 몰트만의 악고론에서는 빈민이 부조리의 상황 가운데

신학"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28(2016), 112.

45) 김동건, "몰트만의 신정론," 187.

46) 김선권, "몰트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산신학지널』 46(2018), 46.

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고난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해방적 삶을 요구받은 그리스도인과 아직 변하지 않은 악고의 시차 그리고 단지 고통받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는 빈민의 비가시화로 인해, 여전히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곳에서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들이 보이지 않고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돕고자 하는 빈곤이라는 보이는 수난 속에 은폐된 수난이다.

사실 수많은 학자가 악고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나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멀어졌는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극도의 고통을 발생하도록 두시는지에 대해 만족할만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다.⁴⁷⁾ 악고론의 난제는 인간에게는 불가해의 영역이며, 본고는 소통이 가능한 답변을 모색하기 위해 철학에서 성서로 넘어왔으나 특히 고통의 당사자에게 여전히 와닿기 힘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은 여전히 현실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IV. 소브리노의 현실적 악고론 분석: 고통의 당사자와 예수의 일체화

화이트헤드의 악고론에 의하면 빈민은 인간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람들로서 비빈민의 사회적 책임감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몰트만의 악고론에서도 빈민은 하나님의 고통으로 스스로 아픔을 떠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노력 덕분에 위로받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두 악고론 모두에서

47)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신정론 문제의 응답으로써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의미,” 245.

결국 빈민은 주체가 될 수 없었는데, 그만큼 빈곤의 문제는 심지어 악고론에서조차 인간을 나약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합리화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해방신학자 존 소브리노(Jon Sobrino)는 인간이 직면하는 여러 고통 중에서 특히 빈곤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예수회에 입회한 그가 19세부터 선량한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가난의 핍박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떠나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조차도 수난자로 살았다는 점에서 입증되는 바다. 따라서 그의 신학은 고통의 당사자가 신앙을 상실하며 던지는 질문과 관련해 사유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비참한 삶이 얼마나 지겨운지 잘 아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리적, 공간적, 구체적 세계에 성서 해석의 자리를 두었기 때문이다.⁴⁸⁾

소브리노의 질문도 몰트만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지였다.⁴⁹⁾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고통당했다는 것으로서 몰트만과 같았으나, 대답의 성질은 매우 달랐다. 소브리노는 죽어가는 빈민당사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고통을 제거해주시기를 기도하다가, 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무고히 죽어간 예수와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⁵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했다면 빈곤과 억압 등 자신들이 겪는 고통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그렇기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있다고 믿었다.⁵¹⁾ 몰트만은 먼저 예수와 하나님의 일치를 신학적으로 논증한 후 예수와 현재 고통에 놓인 사람들과의 일치를 신학적으로 논증해야만 했으나, 소브리노의 입장에서는 예수-빈민-소브리노 자신이 이미 시공

48) Jon Sobrino, 『해방자 예수』 61-69.

49) Jon Sobrino, *Jesus in Latin America* (New York: Orbis, 1987), 153.

50) 김동건, “몰트만의 신정론,” 188.

51) 위의 논문, 188.

간의 일치를 이루고 있어 그러한 해석학적 과정 자체가 무의미했다. 여기서 중요한 실마리가 생긴다. 만약 고통의 당사자가 죽어가는 예수와 동질성을 체감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굳이 묻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소브리노 자신도 알고 있듯 설령 고통의 당사자를 빈민으로 한정하더라도 이러한 해결이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도한 고통 속에서도 은총을 체험하며 신앙적 자세로 오히려 예수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빈민들은 분명히 있다. 그들에게는 고통의 현실 그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질문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말을 듣는다 한들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는 빈민들도 존재한다. 자신에 대한 경멸과 연민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이 보기는커녕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믿지 못하며 부정하는 빈민들도 있다. 그렇다면 똑같이 고통받더라도 빈민들 사이에 행위적 우열의 구분을 둘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십자가에 달린 고통당하는 예수,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빈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소브리노가 고통당하는 민중을 이사야 42장의 수난당하는 종이라고 한 부분과 예수의 광야시험 이야기에 대한 그의 신학적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브리노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은 가난한 민중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대분할 수 있는데, ①가장 먼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②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에게 저항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처벌당했으며 ③그렇게 이름도 없이, 정의도 변호도 없이 죽었기 때문이다.⁵²⁾ 이처럼 빈민들이 예수처럼 보이는 소브리노 그

52) 김민수, “존 소브리노의 그리스도론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2-56.

자신의 이유는 빈민들의 종교적, 윤리적 선택과 구체적 결의의 내용보다 앞서있다. 그들이 예수와 동일시될 수 있는 일차적 근거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취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삶의 현상에 내재해있다.

소브리노는 빈민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해방투쟁의 주체가 되며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산다고 보았다.⁵³⁾ 도대체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는 예수의 광야시험이 지니는 의미를 조명하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답한다. 소브리노는 예수의 공생애를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예수는 순간순간의 결단을 통해 삶을 형성시켜 왔으며, 이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간 것이었다. 예수는 공생애 초기에는 자신의 선포와 힘으로 인해 도래할 하나님나라의 임박함을 선포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나라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자 예수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소브리노는 이를 예수의 내적의식이 분열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라고 본다. 광야시험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 자신이 요청한 성부와의 대화의 시간이었다. 소브리노는 예수가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 지금까지 믿어온 자신의 믿음(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나라가 임한다)을 포기하고, 예측하고 시도할 수 없으며 알지 못하는 미래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나라에 대한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나라의 도래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죽어야 함)해야 함을 깨달은 것으로 완전해졌다.⁵⁴⁾ 소브리노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승리자라든지 구원의 완성자로 부각하는 것과 달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철저한 고독과 버림당함 속에 죽어간 분으로 드러내는 점에 주목한다.⁵⁵⁾

53) Jon Sobrino, 『해방자 예수』 531-533.

54) 김동건, “소브리노의 기독교론에서 ‘광야의 시험’과 ‘중재자를 통해 살피본 예수,’” 『신학과 목회』 17(2002), 128-133.

예수의 사례를 통해 본 이 논의의 특이점은 예수와의 동일시도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다. 소브리노가 제시한 예수의 모습처럼 현실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믿음이 점차 꺾이고 그것이 포기되는 가운데 끝내 실패로 마무리될 시도라도 멈출 수 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죽는 것, 부당한 고통 때문에 철저한 고통과 버림당함 속에 죽어가는 것은 빈민들이 종교적 신앙이나 보다 높은 정신의 고양으로써 해내거나 성취해야 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브리노가 언급하는 십자가에 달린 민중은 빈민이 스스로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취함으로써 성취되는 정체성이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민중이란 부당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죽어가는 그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정체성이다.⁵⁶⁾

그렇게 소브리노는 예수와 동일시함이나 해방투쟁의 주체란 말에서 그것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흔들리는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으며 의도적 노력으로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짐을 부과하는 개념이 되지 않도록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조치했다. 그러한 신학적 작업 내에서 ‘저항하는 자’라는 정체성 역시 인위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을 의미하게 된다. 저항이란 행위의 지향이 아니라 상태의 투명한 진술의 지향이며 ‘인간화된 존재 각성의 과정에 이미 던져진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소브리노의 기독교론인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부정은 이러한 작업의 하나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

55) 김민수, “존 소브리노의 그리스도론 연구,” 41.

56) 빈민의 현존 자체가 시대의 악을 드러내는 지표이며, 평화착시와 긍정성의 폭력의 실상을 가감 없이 폭로한다는 의미에서 빈민의 현존과 죽음이 그 자체로 강력한 저항임을 주장하는 글은 탁장한, “빈곤에 저항하는 그리스도교, 추방된 사람들과 편파적 하나님의 연대,” 『신학논단』 99(2020), 334-335 및 Jon Sobrino, 『해방자 예수』 532를 참고하라.

소브리노는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 대신 사회구조적 희생자에 대한 연대와 자기헌신의 도덕적 의미로 본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소브리노의 현실적 해석은 빈민들이 고통의 상황에서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그 완전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⁵⁷⁾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빈민들에게 초월적 존재, 내세적 구원을 주는 존재로 알리지 않으면서도, 역사적 핍박과 폭력의 한복판에서 소브리노 자신이 함께하며 만났던 빈민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었다. 그의 현실적 악고론은 고통에 놓인 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하여야 한다는 복종과 계도의 어법과는 다르며, 그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저항으로 보고 거룩한 존경과 깊은 감명을 표하는 것이었다. 빈민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들이라는 소브리노의 주장은 고통의 현실에 의해 노출된 당사자들이 생존을 놓지 않는 지금 이 모습의 상태 자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강인함에 적용될 수 있는 바, 굴복하지 않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경외와 존중의 표현이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빈민들의 숨은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숨보다 고귀하며 더욱 큰 가치가 있는 호흡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소브리노는 자신이 만난 민중의 대부분은 자신이 사상적 정치 운동이나 해방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과는 무관하게 고통을 내면화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평화적 대응을 하며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빈민들의 죽음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저항하고자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미 저항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종의 슬픈 표식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이 굳이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채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부당한 죽음을 통해 드러내고 채우게 됨으로써 자신의

57) 김민수, “존 소브리노의 그리스도론 연구,” 41-43.

선량함과 무고함과 거룩함을 증명해낸 것이라고 소브리노는 분명하게 말한다.⁵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게 하는 빈민들의 참된 저항은 그들조차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판단해서 알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역사적 고통의 현실 속에서는 단지 그들의 살아있음과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죽음만으로도 그것이 상당한 저항의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소브리노가 지적한 하나님의 초월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소브리노는 ‘편파적 하나님’이라는 논란이 되는 단어를 자신의 저서에서 사용했는데⁵⁹⁾ 이로 인해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여 그들의 편이신가?’라는 공격적 질문이 불거졌을 때, 그것이 빈민들이 가진 우월성(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 만한)에 있다거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부당한 현실을 미화할 수 있는)에 있다고 하지 않았다. 소브리노는 빈민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는 그 관계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라는 신비스러운 대답을 통해 빈민의 존엄함과 예수를 동일시하는 근거가 불의를 중단시키려는 그분의 집념 때문이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서 찾아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⁶⁰⁾ 그러므로 저항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빈민의 동질성은 단순히 고통당하는 빈민들의 비참한 상태나 특별한 저항행위의 여부에 따른 존재적 구분과 위계의 선을 긋는 개념이 될 수 없다.⁶¹⁾

분명히 소브리노의 해방신학은 기존 신학의 기독교론과 특히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악고론을 전개하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신학적 딜레마에 대해 그의 의

58) Jon Sobrino, 『해방자 예수』 498-533.

59)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50-51, 59-84, 165-181을 참고하라.

60) 위의 책, 107.

61) 김민수, “존 소브리노의 그리스도론 연구,” 31.

도를 주목하지 않은 채 단지 문자적 논쟁만을 일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당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난한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소브리노식 신정론적 논의의 결론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에 대한 논리적으로 명확한 규명보다는, 결국 예수와 동일시되고 무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마음 깊숙이 존경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이어지는 실천적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발생하는 이 모든 부당한 일과 죽음의 수레바퀴를 절단함으로써 못 박힌 민중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노력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브리노에게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은 더 작은 하나님이다. 몰트만과 마찬가지로 악의 문제를 저 높은 곳에서 통제하고 해결하는 신보다는 낮은 곳으로 내려와 인간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고통받는 신이 더욱 큰 하나님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이 사랑이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한다고 말한다. 소브리노가 몰트만보다 더 나아간 점은 그러한 하나님이 악의 문제에 대해 당장 초월적 해결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구원자이며 경배해야 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빈곤한 사람들의 존재를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소브리노는 인간이 악에 대해 질문할 때, 자신도 악의 고통을 받고 있음과 악의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삶이 어떠하기만을 말할 뿐인 하나님께 당사자들이 단지 만족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간 그리스도교 신앙이 억압을 문제 삼지 않아왔음을 역으로 폭로한 것이다.⁶²⁾ 빈민들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 촉발된 부당한 고통을 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와 같으며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야 하나, 논의를 명백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그렇기에 당사자들에게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62) Jon Sobrino, 『해방자 예수』 42.

내비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소브리노는 예수가 무고한 고통을 당해 죽었으나 그는 저항을 분명히 행동으로 보이신 사람으로서 그러했음을 또한 강조한다.⁶³⁾ 소브리노에게 예수의 하나님나라는 정치적이다. 왜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였는가? 예수가 성전-권력 중심의 사회에 저항하셨기 때문이다. 소브리노는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를 정치범으로 죽였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예수가 설파한 하나님나라의 내용은 지배체제와의 강한 대립이며 구체적 상황에서의 실재적 구원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는 예수께서 하신 대로 인간의 구체적 곤궁 상태와 지배체제의 불의한 권력의 구조를 폭로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란 빈곤이 극복되고 빈민의 인간성과 존엄성이 실현되어 정당한 삶이 가능해지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민중의 주체적 해방투쟁은 신적인 구원에 포함된다. 소브리노에게 구조적 부유-사유재산권을 절대화하는 제도적 폭력은 그 무엇보다도 추악한 우상숭배다.⁶⁴⁾ 극도의 비참과 착취에 대항해 투쟁하고 생존권을 보장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이 실재적 구원이 빈민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⁶⁵⁾

이러한 발언들은 언뜻 소브리노 자신의 말에 모순이 생긴 것처럼 수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예수와 동일시됨과 십자가에 못 박힌 민중의 개념이 지금까지의 분석과는 달리 특정한 해방의 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특권인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민중이 하나님의 실재적 구원의 해방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예수와 일체화된 십자가에 못 박힌 민중이란 정체

63) 위의 책, 37-41.

64) 위의 책, 403-404.

65) 김민수, “존 소브리노의 그리스도론 연구,” 40-44 및 Jon Sobrino, 『해방자 예수』 149, 182, 265, 374를 참고하라.

성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먼저 고통받는 그들에게 예수와 일체화되었다는 정체성이 부여되어 인간화의 회복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와 같이 타인을 위한 구체적 저항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선후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변화된 민중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소브리노의 신학적 결과물은 오히려 그가 만났을 듯한 가장 숭고하고 지고지순하며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민중과 거리가 먼 민중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소브리노의 해방신학은 적어도 고통의 당사자들에게 악고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는다. 그보다 앞서는 것은 그들의 인간화와 존엄성의 회복, 삶의 구체적 해방에 대한 절박함이다.⁶⁶⁾ 악과 고통의 문제를 온통 개인의 부족함과 부덕함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시각각 옥죄어오는 정죄와 교정의 시각에 의해 억압받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악고론에 대한 기존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대답이 더욱 큰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식민화하고 비존재화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오늘날 악고론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가난과 고통의 당사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성찰에 있을 것이다.

소브리노의 악고론은 빈곤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

66) 탁장한, “빈곤에 저항하는 그리스도교, 추방된 사람들과 편파적 하나님의 연대,” 334-335를 참고하라. “해방신학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신을 믿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국한하지 않았다. 개종의 의미는 죄의 출처인 모든 사회적 불행과 악탈, 소외로부터의 해방지역에 투신하는지로 판가름 했기에 구원은 단체적 구원(corporate salvation), 즉 정치, 사회, 역사적 구원을 포괄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사건은 대속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이라는 방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미 만인을 구원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는 이유가 초월적 개입을 요구하는 그들의 이기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켰다. 그들은 초월적 신에 의한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것까지는 회구하지조차 않더라도, 악과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대담이 자신을 존엄하게 대하는 진심을 느끼도록 해주고 그들을 비존재화하는 부당한 현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아왔으며 존재 자체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기존의 악고론이 너무도 쉽게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의 선함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 그대로를 무신론적이라고 단정하고서 하나님의 초월성이나 선함을 옹호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브리노는 무신론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악을 낳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⁷⁾

소브리노는 오늘날 악고론의 핵심은 개인적·집단적 현실을 개선하는 신의 기적적 개입의 부재가 아니라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당사자들의 자존감이 손상됨에 따라 신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것임을 드러냈다. 그는 종교적 믿음보다 그들에게 더 간절한 인간화의 욕구가 결코 종교적 믿음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소브리노에 의하면 인간화를 향한 빈민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신정론적 저항의 핵심요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 신앙 자체는 받아들이지 못해도 종교적 신앙이 제대로 구현된다고 할 때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강인함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악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빈민들의 불만이, 그러한 현실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절박한 바람이라면 바로 그들이야말로 더는 초월성과 전능함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부당한 고통에 대해 예수와 같이 빈곤한 타인과

67) Jon Sobrino, 『해방자 예수』 396.

최악된 세상을 위한 더욱 깊은 투쟁과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말: 빈곤의 부조리와 빈곤한 타인의 고통을 향한 잠정적 응답

지금까지 그리스도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속적 고통이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데다가 신앙이 있더라도 마땅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쉽게 단죄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앞뒤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않은 채 선심 쓰듯 하는 일방적 구제로 빈민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심각하게 깎아내리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책임을 충분히 다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타인이 대신 내리는 것은 오만한 일이다. 특정한 빈민의 삶에 대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라고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명백한 잘못이다. 종교적 감성에 충실히 고양되면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빈민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며, 빈민들이 빈곤과 고통이 계속된다는 이유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이기심이라고 단정한 것 역시 신학의 잘못이다. 무엇보다 보이는 빈민을 미끼로 삼아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부각하고 빈민과 그들의 분노와 곤욕을 보이지 않도록 치위둔 점은, 소설가 박완서의 『도둑맞은 가난』(1975)에 따르면 그들의 가난마저 탐내고 강탈해 자신의 이미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는 엄청난 잘못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는 악고론의 핵심목적이 마치 어떠한 부조리한 상황에서든 무조건 신의 초월성과 선함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인 듯이 대답해왔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전통적 물음, 곧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통에 대한 질문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만이 고난에 대한 현대적 물음, 즉 사회비판적이고 외재적인 현실과 관계된 고통에 대한

질문이 비로소 의미 있게 제기될 수 있다.⁶⁸⁾ 지금이야말로 단순히 신을 변론하는 차원이 아닌 빈곤한 흠리스 당사자들의 다소 두서없어 보이는 내밀한 구술에 제대로 주목하고 집중할 때다.

상기해놓은 악고론의 경향이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 내부의 논의에 치우치던 선점에서 깨어나고, 당사자들에 대한 오만을 제대로 여기던 착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고통의 당사자인 빈민들에게 악고론이 중요한 이유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이기적 욕구를 초월적 기적으로 채우고 싶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빈민들을 악고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만큼 그리스도교가 그들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며 세워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비참한 인생에 대해 신에게 부르짖는 그 탄식도 ‘왜 기적이 없느냐?’는 불만이라고 할 수 없다. 고통의 당사자인 빈민들이 악고론을 통해 얻고 싶은 바는 단연 인간화에 대한 갈망이다. 한국교회가 기존의 악고론을 답습하면서 고통받는 삶을 그저 불쌍하게 여기거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 인내하고 참고 감사의 마음으로 성숙하게 수용하라는 선포는 극심한 고통의 당사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자아완성을 기대하며 고난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무기력을 강요하며 신을 위대하게, 신에게 종속된 인간을 왜소하게 만드는 마조히즘적 고난 이해다.⁶⁹⁾

본고는 부당하게 겪는 빈민들의 수난을 이해하기 위해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과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그리고 소브리노의 해방신학을 귀납적으로 탐구했다. 세 가지 신학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지켜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결코 인간을 수

68) Dorothee Soelle, *Suffering*, 최미영 역. 『고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11.

69) 변경원, “텍스트의 고난과 현실적 고통의 만남을 통한 비판적 프로네시스: 리코르의 형상화 개념을 통한 욕의 ‘내러티브’와 세월호 ‘스토리의 만남,’” 『기독교사회윤리』 35(2016), 208.

동적이거나 나약한 포지션에 두고 무조건적 죄인과 무능한 책임자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빈민들의 고통에 대해 감히 하나님께 책임 불이행을 묻는 불손함이나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더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표 1〉 화이트헤드-몰트만-소브리노 악고론의 비교

분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위르겐 몰트만	혼 소브리노
신학명	과정신학	희망의 신학	해방신학
악고론명	근대철학적 악고론	기독교론적 악고론	현실적 악고론
공통점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 하나님의 선함을 지켜냄		
핵심개념	창조성, 합생과 분산, 자유	십자가상에서 성부의 수난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서의 빈민
악고론	<p>당사자들에 대한 응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보를 위한 인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악고 따라서 인간의 막중한 책임이 강조되면서 악고가 제어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한다는 위로 십자가 후 부활처럼 절망 후 희망이 존재함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며 당사자들과 함께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를 십자가에 달려 수난받는 예수로 격상 빈민의 삶 자체가 부당한 고통에 대한 저항임을 존경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인간화를 외면하고 부조리에 일조한 것을 사죄 부조리한 지배체제에 대해 그와 함께 분노하고 저항하겠다는 연대 표명
응답으로서의 한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적 장벽의 공고화로 인한 사회적 책무성의 결여 인간의 자유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인간군상의 고통을 합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유한 1세계 출신의 신학자가 지니는 문화적 한계 고통의 외부자인 그리스도인의 참여가 강조되므로 빈민의 존재가 비가시화되는 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연 목회자가 빈민과 일치되려는 시도로서 복음의 전파와 시혜적 구제보다 먼저 인간화의 욕구에 연대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가혹함을 피하려는 이 신학자들의 대안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화이트헤드는 세상의 악과 고통이 인간의 자유와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보조해주는 신의 사랑이라고 한다. 그의 악고론에서 드러난 신은 악고를 통제하지 못하나,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잘 실현해야 하는 책임의 문제라고 보았다. 몰트만은 하나님에 대해 인간과 함께 수난당함, 궁극적 희망을 확신하는 죽음으로서의 저항을 말한다. 여기서 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허용하고 같이 아파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맥락이다. 여기에 더해 몰트만은 그렇기에 악과 부당한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 부질없이 앓게 될 종말론적 희망을 역설한다. 소브리노는 죽어가는 빈민들이 설령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현실적 변화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 이미 현실적 한계를 가진 무능한 하나님으로도 만족하며 심지어는 그와 동일시됨으로 문제를 해소한다. 소브리노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의 때에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면서도 현실에 저항한다. 이러한 신학적 시도는 하나님나라를 초월에 속한 것으로 두면서도 인간의 노력과 저항을 구원역사의 중역으로 편승시켰다.

연구의 결과로 빈곤의 부조리와 빈곤한 타인의 고통을 향해 제시할 수 있는 잠정적 응답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 대답으로서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하나님의 초월적 권력보다는 억압된 인간성의 복구로 접근해야 하며, 기적의 발생이 아닌 그들의 인간화와 존엄의 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악과 고통이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나, 그러한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독 속에서도 저항하듯 살아내고 그렇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자신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이 존엄하다는 근거를 그로부터 발견하기 원한다. 부당한 악이 신에 의해 개선되지 않는 이 복잡한 문제와 빈민들을 둘러싼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에 대해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더라도 만약 단죄가 아닌 ‘당신 안에 예수가 보이며 예수의 삶이 보인다’는 진정성이 담긴 고백의 의미와 존경이 전달된다면, 과연 그들이 여전히 현실에 대한 기적의 부재 때문에 그들의 주로부터 등을 돌릴까. 이 새로운 시도가 고통의 당사자들에게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지금까지의 그리스도교는 유감스럽게도 시도해본 바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악고론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교의 실패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책임임을 부인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소브리노의 악고론을 통해 빈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대답은 빈민의 식민화에 대한 사과와 무릎 꿇음이다. 다중수난을 겪는 홀리스 빈민들의 삶 자체가 처절한 저항이고 죽음이 그들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라면, 이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명목으로 실상 그들을 조련하고 자존심을 훼손하며 빈민의 빈민됨을 고착화 하면서 그들을 사지로 몰고 간 부당한 빈곤의 부조리에 부역해온 것에 대한 사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구제가 이루어졌어도 시혜자-수혜자 간 수직적 권력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구제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감사와 굽신거림의 표시, 구제한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불만을 제기하기보다는 목소리를 소거한 채 절대적으로 순응해야만 하는 빈민의 모습은 앞서 상기했던 빈민의 삼차적 수난인 빈민의 동물원화가 자비의 이름으로 현실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와 같은 실천방식이 전복되지 않는다면 홀리스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악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회선교도 계속될 것이고, 끝내 빈민들은 일종의 노예처럼 종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로 여기고 이 사회의 중역으로서 존경하는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위한다고 생각되는 구제와 자선의 현상 자체의 치명적 위험성을 똑바로 검토하고, 설령 표면적으로는 앞뒤 맥락을 따지지 않고 그러한 구제라도 일단 그들이 받아내기를 혹여 원할지라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기만적 술수를 그들에게 실토, 자백하며 사죄하는 것이다. 감시와 통제와 기제가 될 수 있는 구휼이 악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과 그리스도인의 참여를 강조했던 화이트헤드와 몰트만의 악고론을 가난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공고해질 수 있음을 자각하고, 더 나은 것을 준다는 자부심을 멈추어 그들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으며, 시혜적 실천을 권리의 증폭으로 바꾸기 위해 속죄의식을 가지고 흠리스 빈민들이 부르짖는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들의 의견에 연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흠리스 당사자에게 고통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합리적으로 결코 해명할 수 없는 문제에 매인 악고론이 아닌, 부당한 악과 고통이 있음에도 그들 자신의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또 곳곳이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현실적 악고론, 나아가 인간화를 위해 빈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부조리에 분노하고 투쟁하는 수평적 악고론이야말로 빈곤의 부조리와 빈곤한 타인의 고통을 향해 본고가 제안하며 지금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겸허한 실천이 요구되는 참된 응답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몰트만의 신정론.” 『신학과 목회』 14(2000), 165-191.
- _____. “소브리노의 기독교론에서 ‘광야의 시험’과 ‘중재자’를 통해 살펴본 예수.” 『신학과 목회』 17(2002), 121-140.
- 김민수. “존 소브리노의 그리스도론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 김선권. “몰트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산신학저널』 46(2018), 45-77.
- 박영범. “신정론과 하나님의 고난: 신정론 문제의 응답으로써 하나님 고난이 주는 의미.” 『한국조직신학논총』 33(2012), 243-279.
-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서울: 문이당, 2007). (발표연도: 1975).
- 박일준. “평화, 그 불확실성을 위한 용기: 화이트헤드와 헨리 나우웬의 평화 개념에 대한 신학적 고찰.” 한국문화신학회 편저, 『평화의 신학』(서울: 동연, 2019), 114-145.
- 변경원. “텍스트의 고난과 현실적 고통의 만남을 통한 비판적 프로네시스의 생성: 리콰르의 형상화 개념을 통한 옴의 ‘내러티브’와 세윌호 ‘스토리’의 만남.” 『기독교사회윤리』 35(2016), 193-218.
- 서한석. “그리스도교의 희망과 출애굽 공동체에 대한 이해: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28(2016), 111-160.
- 석종준. “화이트헤드의 종교와 신에 대한 소고.” 미간행.
- 신옥수. “한국에서 몰트만의 수용과 이해.” 『한국조직신학논총』 35(2013), 189-222.
- 손호현. “아름다움의 모험: 화이트헤드의 세 가지 신정론 분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3-1(2006), 197-221.
- 오진철. “화이트헤드의 신정론.” 『화이트헤드연구』 31(2015), 137-166.
- 장왕식. “악의 실재성에 대한 과정신학적 이해: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초하여.” 『화이트헤드연구』 19(2009), 133-170.
- 제해중. “악의 실존 앞에서 완전히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와 존 힉의 신정론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23-3(2018), 145-173.
- 탁장한, 박정민. “쉽터노숙인 빈곤대처방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5-4(2014), 357-380.
- 탁장한. “빈곤에 저항하는 그리스도교, 추방된 사람들과 편파적 하나님의 연대.” 『신

학논단」99(2020), 313-358.

Griffin, David R. *Reenchantment without supernaturalism*, 장왕식, 이경호 역. 『화이트헤드 철학과 자연주의적 종교론』. 서울: 동과서, 2004.

Moltmann, Jurge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이신건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Sobrino, Jon. *Jesucristo liberador*, 김근수 역. 『해방자 예수』.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5.

Soelle, Dorothee. *Suffering*, 최미영 역. 『고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Goetz, Ronald. "The suffering God: The rise of a new orthodoxy." *The Christian Century*. 103-13(1986), 385.

Griffin, David R. *God, power, and evil: A Process Theodic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_____. *Evil revisited*.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Hartshorne, Charles. *Man's vision of God and the logic of theism*. Hamden, CT: Archon Books, 1964.

_____. *Reality as social process*. New York, NY: Hafner Publishing Co., 1971.

Cobb, John B. & Griffin, David R. *Process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6.

Moltmann, Jurgen. *Theology of hop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64.

_____. *Hope and planning*. New York: Harper & Row, 1971.

_____. *The crucified God*.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72.

_____. *The way of Jesus Christ*. London: SCM Press, 1990.

Sobrino, Jon. *Jesus in Latin America*. New York: Orbis, 1987.

Whitehead, Alfred N.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Free Press, 1925.

_____.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29.

『경향신문』. 2020.10.17. “[숨] 드럽고 치사한 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70300035&code=990100 (2021.2.19.)

『비마이너』. 2020.11.23. “코로나19에 홈리스 외면하는 서울시, 홈리스 생존 예산 마련하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2> (2021.2.22.)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18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21일

• 국 문 초 록 •

빈민이 밀집된 쪽방촌, 역전, 고시촌과 같은 공간에는, 사회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나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가시화된 고통 및 수명을 채우지 못한 빈번한 죽음이 존재한다. 초월적이고 전능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이들 홈리스(homeless)의 부조리한 현실은 매우 곤란한 현상이다. 사랑은 평화와 생명력을 낳는데, 빈곤의 밑바닥에 놓인 사람들의 인생이 신의 사랑의 결과라면 이는 참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술로 하루를 지새우고 생사의 경계를 늘 직면하더라도 그 삶이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단지 고통으로 수렴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은 빈민들의 인생이 색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추구함에도, 그 이면으로는 빈곤을 타하지 않고 실존하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빈곤한 상황도 신의 사랑이라는 명제를 만든다. 이는 구조적 빈곤의 문제를 간과하고 신의 사랑으로 은폐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빈곤의 상태에 책무성을 지니고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신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해석은 없는가. 본고는 빈민들이 인간성까지도 파괴하는 생활고를 겪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악의 실재 속에서 초월적 신의 선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당사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응답을, 최근의 주요 악고론과 특히 혼 소브리노의 악고론을 통해 귀납적으로 탐사한다.

주제어: 빈곤, 도시빈민, 홈리스, 악고론, 혼 소브리노
